

도, 기본소득 현장 점검...지역경제 효과 '현실화'

김중훈부지사 순창 방문 성과 점검 누적 지급액 259억원 소비 활성화 순창·장수 인구 1,541명 증가 가맹점 435곳 늘며 상권 확대

전북도는 11일 순창군을 방문해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점검과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점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순환형 정책이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

는 방식이다. 전북은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855억 원 규모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함께 투입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자는 총 4만4,651명, 지급 인원은 4만2,684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지급액은 259억 원 규모로, 순창군에는 약 145억 원, 장수군에는 약 114억 원이 지급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사업 추진 이후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순창군과 장수군의 인구는 사업 선정 이후 총 1,541명(순창군 869명·장수군 672명) 증가했다.

가맹점도 총 435개소가 새롭게 등록됐다. 순창군은 239개소, 장수군은 196개소가 증가해 지역 내 소비 기반이 확대됐으며, 신규 창업과 소상공인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순창읍 내 주요 가맹점 8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방문 대상에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피자점과 한식주점,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 생활밀착형 점포 등이 포함됐다.

현장 상인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유동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인은 기본소득 사용자 확대와 홍보 지원 강화 필요성을 건의했고, 김 부지사는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순창군은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자 부

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와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과 권역별 순환마켓 조성, 농협·자활센터와 함께하는 '온정장터', 기아(KIA)와 연계한 이동장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까지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는 진안·무주·임실·고창·부안 등 도내 5개군이 신청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이원택 예비후보>

민주당 전북 후보들 "피지컬AI로 전북 대도약"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피지컬AI 대혁명"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의 중심지이자 미래산업 거점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와 조지훈 전주시장·김재준 군산시장·최정호 익산시장·유희태 완주군수·권익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전략산업인 피지컬AI·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마련됐다.

예비후보들은 "정동영 의원이 초석을 놓은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기반 조성 사업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는 현대차그룹의 9조 원 새만금 투자를 통해 전북이 구상해 온 미래산업 전략이 국가사업과 대규모 투자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전북 앞에 새로운 대도약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피지컬AI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산업이다. 정부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1조 원, K-로봇 피지컬AI 실증 공유센터 구축에 2200억 원, AI 신뢰성 혁신센터 구축에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비후보들은 "피지컬AI 기반을 넓히는 막대한 인프라와 투자의 중심 무대가 바로 전북"이라며 "첨단반도체 설계부터 로봇 부품 실증, 데이터 운용, 핵심 인재 양성까지 전북 안에서 연결하는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피지컬AI 규제자유특구 지정 △국가연구원 설립 △AI 교육센터 구축사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피지컬AI 벨트와 AI 펀드 조성, 김재준 예비후보는 현대차 전력 인프라 선지원과 기가와트급 태양광 부지 확보를, 최정호 예비후보는 산업단지 AI 전환, 유희태 예비후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권익환 예비후보는 피지컬AI·방산·수소 복합 제조기지 조성을 각각 약속했다.

이들은 "피지컬AI 정책 추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북 전역을 피지컬AI 거점으로 연결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저희는 선대위 단계에서부터 산·학·관 이 함께 참여하는 '후보 직속 피지컬AI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향후 도지사 직속 위원회로 이어져 도정과 시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 현장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인공지능산업협회, IT산업협회,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의 원팀이 돼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전북을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339억 추가 지원

중동 정세·곡물가 상승 대응 추진 정부 추가지원금 339억 확보 1903억 규모...농가 저금리 지원

전북도가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33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축산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정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 한시 확대 지원을 지속 건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추가 지원 규모 1,350억 원 가운데 25.1%에 해당하는 339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 1차 지원분 1,564억 원을 포함해 총 1,903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하게 됐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는 물론 기존 고금리 외상금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와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

년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암소비육지원사업과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ASF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는 2025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0.4~1.8% 수준의 이차차액을 추가 지원하고, 농림수산발전기금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해 농가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오는 7월 29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내외의 경제 불안정과 지속적인 물가 사료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사료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년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암소비육지원사업과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구제역·고병원성 AI·ASF 예방적 살처분 피해 농가 등 정부 정책 참여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도는 2025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과 사육 규모에 따라 0.4~1.8% 수준의 이차차액을 추가 지원하고, 농림수산발전기금과 연계한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해 농가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오는 7월 29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내외의 경제 불안정과 지속적인 물가 사료가격이 오르면서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사료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육성 '박차'

산학연 협력 인재양성간담회 개최

전북도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11일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회의실에서 익산시, 전북대학교,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전북대, 원광대가 체결한 '동물헬스케어 인력양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단순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운영과 산업 현장 연계 등 실행력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중점을 뒀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인력 양성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실습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한 추가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대응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연계해 교육부터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양성한 우수 인재가 도내 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협약기관 간 협업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조성을 연계해 그린바이오·동물



<사진=전북도>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헬스케어 산업은 바이오와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미래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북이 동물헬스케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인공지능산업협회, IT산업협회,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예비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이 하나의 원팀이 돼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전북을 대한민국 AI산업의 중심지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1면에서 이어져>

하지만 시민들은 시설 노후화가 위생 관리 부실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 이용객은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불쾌감만 안고 돌아왔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청결 상태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완산수영장은 매점 가격 논란에 이어 샤워실 위생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 불신도 커지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청소 인력 운영 실태와 시설 노후 배관 문제 등을 전면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기원 기자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따듯한 나눔"

헌혈 합시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행정 폭거” 질타

주민차량 통행권보장·대책 집행부 답변 요구



김윤철 의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에 중노숙동 기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도로의 폐도(廢道) 결정에 대해 행정 폭거라는 지적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사진)은 11일 전주시에 서면 질문을 통해 “기차촌 재개발 2단지 설

계 과정에서 주요 차도가 폐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권을 박탈당하고 극심한 불편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18년 전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공람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공람 내용에는 도로 축소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주민의 눈을 가린 일방적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0여 년의 사업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시민은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의원은 △주민에게 폐도 사실을 명확히 공지했는지의 여부 △도시 계획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특별감사 또는 외부기관 검증 실시 의향 △기존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체 도로 확보 및 차량 통행 가능 유지 방안 재검토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한 감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시민이 품고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 기능을 원상회복할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꿈드림’ 검정고시 100% 합격 ‘신기록’

2026년 제1회 검정고시 ‘결실’

성적 향상을 공유했다.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주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125명이 ‘합격’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전주시 ‘꿈드림’은 전주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들 전주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 학습 수준에 맞춘 1:1 개인멘토링 △자기주도 소그룹 멘토링 △진로상담 및 컨설팅 △온라인 강의 지원 △검정고시 모의고사 등의 ‘꿈드림’ 지원을 받으며 학습 의욕을 높여왔다.

더불어 전주시 ‘꿈드림’은 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교육협력 지원 사업 ‘장원급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복귀와

이에 따라 2026.04.04. 전주 기전중예 마린원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주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 ‘결실’은 100% 합격 신기록으로 나타났다.

참여 희망 청소년은 전주시 꿈드림 누리집(www.jjsangdam.or.kr)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상담지원 △검정고시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은 전주시 지역 청소년 만9세부터 만24세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중동전쟁 위기 극복 긴급 추경예산 편성

총 1069억 규모 신속 집행 제430회 전주시의회 심의

전주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총 1069억원 규모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추경에 발맞춰 정부 추경에 포함된 신규·확대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

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 총 예산 규모는 2조7955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98%인 1069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교부세 167억원과 국·도비보조금 902억원 등 총 1069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으며 세출은 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993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2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58억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6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열리는 ‘제4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 교통경찰 ‘게릴라식’ 음주운전 특별단속

‘언제 어디서든 적발’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도민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지난 3월 13일부터 7주간 집중단속 결과, 유흥가, 식당가,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숙취운전 단속을 병행해 총 457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425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며 가시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주·야간을 불문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게릴라식 단속’을 상시화해 경찰관의 노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적발 된다”는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숙취·낮·심야) 및 지역 축제·관광지·체육시설 등 인파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일 주요 톨게이트 진출입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 특별 관리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추진

전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강력한 체납징수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

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20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했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

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 총액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5월 중 대상자를 상대로 압류 예고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제3채무자인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제9회 전주독서대전’ 북마켓 참여단체 모집

전국 서점·책방·출판사 신청 가능

전주 대표 독서 출판 문화축제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 책방 등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다.

전주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제9회 전주독서대전’에 참여할 북마켓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북마켓 운영 단체는 전주독서대전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10% 할인해 판매하게 되며, 시는 전국의 서점과 책방, 출판사를 대상으로 총 13개 운영 단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참가 조건은 △행사 기간 10% 할인 판매 △단순 판매 업체 지원 불가(학습지나 교구 등) △5종 이상의 출판물 발간(1인 출판사 및 독립 출판사의 경우) 등이다.

참가 단체에는 부스 시설과 함께 독서 체험 행사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작가 강연 운영비로 최대 25만 원이 제공된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단순 도서 판매 부스로 참가할 수도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고농도 오존 발생 집중관리대책’ 시행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5월에서 8월 까지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물질로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어 가슴 통증,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건강상 사람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의 오존의 평균농도(0.094ppm)는 전국(0.108ppm)에 비해 87% 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오존 주의보 발령횟수는 총 23회 발령됐고 그 중 군산권이 8회 발령되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오존 생성에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고농도 오존 발생 대비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배출 상위 산업단지 30개소를 대상 집중점검해 원인물질 저감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 80여개 사업장에 대해 대기배출·방치시설 적정운영 여부,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도로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에 국비 174억원을 지원한다.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총량관리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오존생성 원인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향교(전교 강성수)는 지난 10일 국가유산청, 전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인 ‘2026 누림터 儒遊’ 중 ‘시방까지 어리광인가’ 계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주시>

전북지역 유학생 전통 성년례 ‘계례(禮)’ 개최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계례·축하공연·전각 체험 등 진행

전주향교(전교 강성수)는 지난 10일 국가유산청, 전북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활용사업인 ‘2026 누림터 儒遊’ 중 ‘시방까지 어리광인가’ 계례 행사를 개최했다.

‘계례’는 ‘자녀로서, 아우로서, 신하로서, 젊은이로서 효제충순(孝弟忠順)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 것으로 성인으로 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예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부여받는 성년례이다.

행사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전북지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주향교 탐방, 성인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 계례, 축하공연, 전각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2026 누림터 儒遊’ 프로그램은 진짜 배기 儒(유생체험, 전통혼례), 시방까지 어리광인가(관례 및 계례, 문화공연, 인문학 강의) 올곧음, 遊(생활예절, 다례체험, 한옥마을 탐방), 溫故知新 儒(제의례, 가정의례, 문화유산 탐방)로 구성되어 11월까지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하천·공원’ 집중 방역

풀숲 집중 방역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전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해충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야외 활동 증가 및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 불편 해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천 주변과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역기동반(2팀 4명)과 방역소독차량을 편성해 전주천과 삼천천 주변 산책로, 도심 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특히 수변환경 특성상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주천과 삼천천 일대에 대해서는 방역반을 활용해 정기 방역과 수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는 여름철 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해 포충기 337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8대를 사전 점검을 거쳐 전면 가동함으로써 공원 및 산책로 이용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방역은 모기 살충에 효과적인 초미립자 연무 소독과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인체에 저해한 친환경 유충구제 약품 살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위생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 방역에 발생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전북소방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차가 화재 막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쓰레기야적장 화재 현장에서 어청지역의용소방대와 현지에 배치된 화재진화차가 신속히 투입돼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어청도는 육지 소방력이 해상 이동을 거쳐야만 투입될 수 있는 도서지역으로, 화재 발생 직후 현지에서 알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화재 발생 직후 어청지역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진화차를 이용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대원들은 화재 위치와 연소 방향을 확인하고 주민 접근을 통제했으며, 화재진화차를 활용해 불길에 주변 임야와 시설물로 번지지 않도록 초기

진화에 나섰다. 폐기물 더미에서 열기와 짙은 연기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대원들이 후속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화, 현장 통제, 위험요인 확인, 진입로 확보 등 선적대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군산소방서는 해경 고속정을 통해 소방대원 5명과 동력펌프 2대를 급파해 진압 활동을 보강했다.

전북소방본부는 현재 도내 선유도, 개야도, 어청도, 위도 등 4개 섬에 화재진화차 및 소방펌프차가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섬에는 의용소방대원 20명과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 진압 장비를 갖추고 도서지역 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BIONE 고용혁신' 참여기업 모집

바이오산업 기업성장 근로자복지일생활 균형 지원 추진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전주시·익산시·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BIONE(바이온) 고용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고용노동부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기초이음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전북 바이오산업 통합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기반 마련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에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전북도·전주시·익산시·정읍시 전북안정지원개발위원회 및 수행기관들이 함께 수차례 전문가 컨설팅과 사업 고도와 과정을 마쳤다.

특히 지역 바이오산업 기능 연계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따라서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수행기관으로서 권역 내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재직자 복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BIONE 기업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권역 내 바이오기업 간 기능 이음, 이진 촉진, 협력 강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근로자 복지 확산을 위해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채용약정형 기업지원금을 제공한다.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20%를 자부담으로 매칭해 근로자 복지시설 개선, 휴가비 지원 등 자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환류형 지원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또 'BIONE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



<사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형 지원사업'은 바이오기업의 업무 과정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위탁 등을 기업당 최대 4천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f.r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농관원, 농산물 안전망 구축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11일 전북농협에서 '전북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1번지'인 전북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최고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협 경

제사업장 실무자 대상 원산지·안전성 조사 등 식품 안전 교육 정례화 추진 △명절·성수기 부정 유통 차단 사전 점검 실시 △산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약을 기점으로 실무자 간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농산물 안전·원산지 교육을 강화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최고 수준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중국 상하이·선양 시장개척 본격”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제4차 무역사절단' 참여

전북도-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도내 중소기업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신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제4차 무역사절단'을 중국 상하이와 선양으로 파견했다.

제4차 무역사절단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참여한다.

특히 사절단은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와 동북 3성 물류 거점인 '선양'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수출국이자 거대 소비 시장으로 특히 상하

이와 선양은 최근 프리미엄 식품, 화장품, 스마트 가전 등 K-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서 경진원은 사절단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자 이미 파견 2개월 전부터 단계별 바이어 발굴 프로세스에 착수했다.

여기에 파견 시점까지 도내 기업들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연결하기 위해 정밀 매칭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진원은 상담회 이후 참여 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군산명산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유관기관 합동 전통시장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장마철 태풍·폭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침수 이력이 있거나 하천변·저지대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전북중기청은 전북지역 전체 전통시장 59개소 중 피해 우려가 높은 15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나머지 44개소는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에는 전북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축·구조 및 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점검의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아케이드 누수, 배수로 관리상태, 외부 시설물 고정상태, 전기설비 침수 취약 여부 등 풍수해 취약 요소 전반이다.

한편 중기부는 집중안전점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에 즉시 안내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과 연계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동물용의약품 위탁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최정록 본부장)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위탁사업 착수보고회를 오늘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실험실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시작으로 실제 대상 동물에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되게 생산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모든 과정을 과학적·법적 근거에 따라 검토해 품목 허가를 지원하는 인허가 규제과학(RA)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관리 체계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임상·비임상 시험연구(GCP·GLP) 단계부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허가 규제과학(RA)까지 전 주기에 걸친 분야별 현장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위탁사업을 마련했다.

세부 교육과정은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70여 명, 50시간)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대상 GCP 직무교육(50여 명, 2시간) 등이다.

위탁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분야인 신약 연구개발, 제품화 및 품목허가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국제 규제 환경과 기술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뉴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소통' 행사

김성주 이사장 "국민과 직접적 소통 위해 마련"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1일 공단 본부에서 국내 경제·연금 대표 인플루언서인 김광석(경제 읽어주는 남자), 신승식(엠펙글로벌 본부장), 이영주(연금박사), 전인구(전인구경제연구소)를 초청해 '뉴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딱딱한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언어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뉴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국민 소통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통 배경에 대해 "이제는 기관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국민이 편한 방식으로 들려주어야 할 때"라며 "인플루언서들과 가깝고 솔직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인플루언서들은 △뉴미디어 기반의 홍보 다각화 △청년세대 포함 대국민 신뢰도 제고 △연금 소진 불안 해소 방안 △국민 친화적 제도 개선 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플루언서들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정보 전



<사진=국민연금>

달과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공단과 콘텐츠 협업을 추진하고 소통 채널 강화에 적극 동참

하기로 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애로해소센터 '세무·회계' 전문위원 위촉

9명 체계로 확대 운영 경영세무·회계 맞춤 지원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애로해소센터 세무·회계 분야 전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9명 체계로 확대 신규 위촉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테크노파크 애로해소센터는 산업 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

로 운영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기술·경영·마케팅·노무·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과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시상담, 현장방문 상담,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술닥터, 기술교류네트워크, 중소기업기술혁신협의회 등 다양한 연계지원 프로그램

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 전문위원 신규 위촉은 최근 기업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세무·회계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전문적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위촉된 전문위원 9명 체계는 기술·R&D 분야 4명과 경영 분야 5명으로 구성되며, 경영일반·조직관리, 마케팅, 특허·법률, 인사·노무에 이어 세무·회계 분야까지 전문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신규 위촉된 전문위원은 향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세무·회계 분야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비료액 다시 쓰는 '순환식 수경재배' 주목

농진청, 보급·확산... 비료구매비 40%절감

최근 비료구매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해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보급·확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술은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은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재배 과정 중 배출되는 배액을 버리지 않고 회수해 분석·살균·희석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것이다.

기존 배액을 버리는 '비순환식 수경재배'와 비교해 화학비료는 30~40%, 농업용수는 20~30%가량 절감할 수 있다.

또 비료 사용 절감으로 탄소 배출량도 작물당 따라 최소 26%에서 최대 63%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경재배 작물인 딸기·토마토·파프리카·멜론 4품목을

대상으로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적용한 연구 결과, 비순환식보다 △딸기는 비료구매비 21%, 탄소배출량 26% △토마토는 비료구매비와 탄소배출량 모두 63% △파프리카는 비료구매비 63%, 탄소배출량 61% △멜론은 비료구매비와 탄소배출량 모두 34% 줄었다.

실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 도입 후 양액 농축액 사용 기간이 평균 두 배로 늘었다.

아울러 배액 50%를 전량 재활용해 비료 사용량을 약 50% 줄임으로써 연간

약 1,000만 원(0.3ha 기준) 가량의 비료 구매비를 절감하고 있다.

한편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474헥타르(ha)에서 2024년 4,671헥타르(ha)로 약 10배 늘었지만, 순환식 수경재배는 전체 면적의 5%에 그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순환식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총 43개소에 보급하고 있으며, 2028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호성신협-전평신협 이사장 '사회공헌' 전개

전주호성신협과 전평신협은 각각 덕진구 소재 경로당 19곳 어르신들에게 케이션 떡 전달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신협 행복한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김용식 전주호성신협 이사장은 우영란 이사와 강석권 차장과 함께 '경로당 19곳을 찾아 케이션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전주호성신협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 참여자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 전주호성신협은 '26년 4월 말 기준 자산 1005억원, 조합원 수 6095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채한묵 전평신협 이사장은 임직원 2명과 함께 집안 내·외부 청소와 벽지장판 도배 교체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더불어 전평신협은 2022년 전주시 아동, 2024년 전주시 송천동, 2025년 완주군 봉동읍, 올해는 전주시 금암동에서 4년째 '신협 행복한 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용식 이사장



채한묵 이사장

고창군 동리시네마 “모든 영화 1000원에 관람”

정부 지원 사업 일환 최상의 관람 환경서 전국 최저가로 제공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중인 고창군 동리시네마가 13일부터 상영 중인 모든 영화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2026년 추경예산을 통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극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1인당 6000원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할인은 정부의 할인권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예매 시에는 1인당 2매, 동리시네마 현장 발권 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동리시네마는 최근 첨단 레이저 영사기 추가 도입과 스크린 교체 등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마쳤다. 이번 정부 지원 할인 혜택까지 더해져 대도시 멀티플렉스 못지않은 최상의 관람 환경을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게 됐다. 또한, 동리시네마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독립예술영화 상영 프로그램 운영 사업’ 상영관

에 최종 선정됐다.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국내외의 우수 독립예술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다채로운 기획전을 통해 고창 주민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즐거운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부담 없이 극장을 찾아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남원시 ‘특별한 국악 공연’ 펼쳐진다

15·16일 청아원에서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우리 음악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국악 공연이 남원 청아원에서 펼쳐진다. 남원시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어린이악회 ‘신나락 만나락’을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과 16일 오후 3시, 총 2회에 걸쳐 청아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 공모사업 ‘2026 찾아가는 국립극장’ 선정작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어린이·가족 대상 국악 기반 융복합 음악극이다. 신화와 이야기, 음악을 결합한 흥미로운 구성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고, 가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우리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품은 노래하는 아이 ‘선율이’ 전설 속 거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국악 연주와 연기, 다양

한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공연장을 찾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족형 문화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 객원배우 등 총 14명이 출연하며 공연시간은 약 60분이다.

관람 연령은 36개월 이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성인 관람료는 5천 원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우리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연을 준비했다”며, “국립극장의 우수 공연 콘텐츠를 청아원에서 선보이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나루컬처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국립창극단 ‘토선생 용궁가다’ 선봬

‘수궁가’ 재해석 창극 오는 16일 막 올릴

군산예술의전당이 2026년 기획공연으로 국립창극단의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를 오는 16일 오후 3시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2026 국립극장 지역 문화거점 공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역 시민들이 수준 높은 국립 예술단체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전 연령층이 쉽고 재미있게 즐

길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돼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토선생 용궁가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창극 콘서트로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겸 단장 유은선이 연출과 극본을 맡았으며, 작창 한승석, 음악감독 최영훈, 안무 김주연 등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참여해 작품 완성도를 높였다. 단순한 전통 공연 형식을 넘어 토끼와 자라, 용왕이 등장하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판소리 특유의 흥과 재치를 살리면서도, 진근

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무대와 음악, 연출을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군산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익숙한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판소리 특유의 흥과 재치를 살려 관객 몰입도를 높인 작품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연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5천 원이다.

군산시 관내 65세 이상 거주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람은 초등학생 이상 가능하며, 예매는 티켓링크와 커피브라운을 통해 가능하다.

/군산=임근석 기자



<사진=군산시>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체육 정책 간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체육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체육 정책 간담회는 오늘 전북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더해버린 주당 이원택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가 참여한다.

각 후보들은 이날 체육 정책 발표 및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간담회는 먼저 이원택 예비후보가 당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김관영 예비후보가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이날 체육 정책간담회에는 체육인 뿐만 아니라 체육에 관심이 높은 일반 시민들도 참여, 각 후보들의 체육 정책을 경청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천호성 ‘미래 교실’ 등 수업 혁신 공약 발표

참여형 수업 확대 및 수업분석실 지원 등 제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전환과 교사 전문성 강화를 뼈대로 한 ‘수업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4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AI·에듀테크 활용 미래 교실 구축 △교원 연수시스템 재구조화 △수업분석실 지원 및 전문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그는 상위권 위주의 수업을 탈피해 협력·토론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일선 학교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예비후보

이를 위해 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기존 연수 방식을 현장 맞춤형으로 다각화한 다.

또한 희망 학교에 수업분석실 설치를 돕고, 수업 혁신 우수 교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수업은 길게, 평가는 짧게 중심으로 바꿔 실력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단순한 점수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역량 등 삶을 살아갈 힘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도청, 교육발전특구 합동 점검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3년 차를 맞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1곳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교육 혁신 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향후 교육부의 특구 정식 지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4년 교육부 공모를 통해 총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합동 현장 방문 첫 일정은 11일 익산 교육발전특구에서 진행했다. 익산 특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이 연계한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방과후 및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주요 시·군 방문 일정은 △11일 익산 △오는 14일 부안 △오는 15일 남원 등이다.

전북교육청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현재 11개 시·군 모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안착시키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아 시장 대상 팸투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인도네시아 여행사 협회 및 현지 여행사 대표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전북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팸투어를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과 웰니스관광 사업이 연계해 추진했으며, 전북 특화 관광자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도네시아 시장 대상 전북 관광상품 개발과 국제관광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3박 4일간 전주, 완주, 순창 등 전북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자원과 웰니스·전통문화 콘텐

츠를 연계한 체험형 일정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완주 아원고택, 순창발효테마파크 등 전북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고추장 만들기 와 다도 체험 및 명상 프로그램 등 한국 전통 문화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통문화와 미식, 웰니스 관광 등 전북만의 강점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관광시장 맞춤형 마케팅과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북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6.3 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유한회사 준테크 TEL-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대홍정판사 TEL-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아트애포토 TEL-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군산시, 13일 주공시장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군산 주공시장에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13일 오후 2시, 주공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와 JTV전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후원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행사는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민 노래자랑과 함께 초대 가수 강진, 소명, 정승, 최대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또한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예식이 진행되며, 본선 참가자들의 열띤 무대와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돼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선 무대가 종료된 후에는 전문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참가자에게는 인기상도 수여된다.

특히 이번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을 단순한 소비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머물고 즐기는 문화·소통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시장가요제가 시민과 상인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정읍시, 예비 귀농인 정착 도와...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정읍시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관내 선도 농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2026년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교육 이력이 없거나 기초 소양 교육이 필요한 초기 입문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생활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관련 정보 부족과 경험 미숙, 창업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자체 농업 정책 활용법, 정읍시 지역 역사와 문화, 올바른 농약 사용법, 선도 농가 방문을 통한 현장 맞춤형 재배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 후반부에는 선도 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영농 설계와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컨설팅)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실습과 농가 밀착형 자문을 함께 펼쳐 교육생들이 수료 후 실제 영농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 삼학동, 경로당 찾아가는 기초건강·치매선별검사 실시

군산시 삼학동은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사 및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첫날인 11일 금광삼성아파트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9개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 내용은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검사 △인지기능 평가를 위한 치매 선별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이번 검진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의료 기록 없는 아동 살핀다

6세 이하 영유아 164명 가정 직접 방문... 아동보호 안전망 강화

익산시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선제적인 아동 보호 조치에 나선다.

시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익산경찰서,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유관기관은 반복 신고·수사 이력·사례관리 거부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14가구를 선정했으며, 익산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함께 방문해 아동 안전과 학대 여부를 정밀 확인한다. 점검 결과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분리 조치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양육 고민이 있는 가정에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다. 대상은 국가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

관 진료 기록 및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이 전혀 없는 익산지역 영유아 164명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건강 상태와 양육 환경을 살피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아동을 한발 앞서 발견하고, 가정 내에서 건강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생활형 담레품' 15종 추가

고향사랑기부자 선택 폭 확대 및 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담레품 15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존 담레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품목 모집을 진행했다.

기부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맞춤형 담레품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당 1개 품목으로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해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농축수산물 중심의 담레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부자들의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생활형 담레품'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모집 결과 총 13개 업체 17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군산 지역 생산·제조 여부와 원재료 함량, 유통 경로, 기존 담레품과의 중복 여부, 생활형 담레품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담레품에는 군산의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인 △어성초 한우세트·등갈비 △양

념계장 △순질 감오징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완화된 기준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생활형·이색 담레품으로 △바디케어 세트 △우드스프·볼펜 세트 △딸기 모종 및 방울토마토 등도 추가돼 기부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우 공보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확대

다이로움 결제 시 최대 20% 할인 혜택

익산시 대표 민생정책인 '착한가격업소'가 다양한 업종으로 외연을 넓히며 시민 체감형 상생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착한가격업소 3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익산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과 미용·사진관 등 생활서비스 업종부터 유소년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신규 모집을 통해 지정 업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선정 업소에는 최대 11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 지원과 인증 간판·표창 제공,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정책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과의 연계다. 착한가격업소에서 다이로움으로 결제하면 총선 인센티브 10%에 정책지원금 10%가 추가로 지급돼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비와 미용 등 생활서비스 분야의 고정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유소년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되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익산리틀야구단은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동시

에 전국대회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제4회 만해한용운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전국 133개 팀이 참가한 '제21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도 8강에 진출하는 등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가 외식업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와 다이로움 정책지원금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는 상생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현울 시장 "코스트코 익산점 조속 추진"

'현장 행정' 행보... 남은 절차 신속 처리 지시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년 시정의 완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정현울 익산시장의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코스트코 익산점'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해 발로 뛰는 책임 행정을 선보였다.

정 시장은 11일 왕궁면 일원의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예정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속한 착공을 위해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지시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코스트코 유치 확정 이후의 진행 상황을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시장은 실무진과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인 (유)법정산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2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



정현울 시장이 11일 코스트코 건립 예정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익산시>

영향평가와 익산시 건축심의를 차질 없이 통과했다.

현재는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 관문인 건축허가와 대규모점포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대규모점포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를 선제적으로 마쳤으며, 향후 코스트코 측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

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코스트코 익산점은 호남권 최초의 입점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끔 핵심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사업보다 큰 만큼, 남은 건축허가와 대규모점포등록까지 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894달하루' 입장료 환급

지역화폐로 최대 5천원

정읍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달하루'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환급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유산을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문화 관광 기반인 해당 전시관의 환급 사업은 미디어아트 관람과 지역 내 소비를 이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관외 거주자 중 할인을 받지 않은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정장 입장료를 결제하면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령별 입장료는 어른 1만 6000

원, 청소년 1만 2000원, 어린이 1만 원이다. 이에 따른 환급 금액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1894달하루'는 동학농민혁명, 정읍사, 무성서원을 비롯한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을 몰입형 미디어아트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포함한 안팎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정읍의 새로운 문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1894달하루'를 찾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번 환급 사업을 준비했다"면서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금연의 날 맞아 금연문화 확산 나서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병행

익산시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금연캠페인과 흡연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금연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공연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캠페인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원광대학교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금연클리닉 안내 및 등록 상담 △폐 나이 측정 체험 등이다.

시는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학교 연계 교육도 병행한다. 오는 26일에는 이리고현초등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28일에는 이리마한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시민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금연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과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기업 애로사항 즉각 조치 '눈길'

남양부직포 인근 수목 정비

정읍시가 최근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한 ㈜남양부직포의 고충을 접수하고 공장 주변 수목에 대한 대대적인 전지 작업을 완료해 쾌적한 조경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조치는 공장 인근 수목이 벌레와 유충의 서식지가 돼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양부직포는 의료용·화장품용 부직포부터 고품질 필터 원단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미세한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원단은 제조 과정에서 청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이러한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을 점검한 뒤 즉시 전지 작업을 시

행해 해충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 1998년 문을 연 ㈜남양부직포는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환경 필터 생산 기업이다. 최근 제3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협력 기업 크린앤사이언스 옆으로 공장을 옮기며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정영희 남양부직포 부대표는 "정읍공장 가동과 함께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기업의 작은 불편이 생산성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청소년상' 수상자 7명 선정

군산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 7명을 '2026년 군산시 청소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사 부문 수상자인 김소망(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21년부터 총 60회, 24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행 부문 수상자인 변수민(내홍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책임감 있는 효행 실천을 바탕으로 가족 내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노동 부문 수상자인 고영민(스페이스루트 군산공장) 씨는 근면·성실한 자세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자격증 12종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기술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문화예술포 부문 수상자인 이민영(문호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재능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체육 부

문 수상자인 백서윤(문문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교육장비 스포츠클럽대회 피구 종목에서 협동심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인 황인인(월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과학발명 분야 전국대회 특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참여 부문 수상자인 시아현(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정책 스티커와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우수사례로 수상했으며,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했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며 지역사회를 밝히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부안군, 청소년 교육 기반 강화 2(題)

지질공원 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부안군은 환경부와 국립공 교육 과정은 에너지, 해양, 원공단이 주관하는 지질공 자연, 인문 등 4개 분야로 구 원 교육지원 사업인 '지오드림(Geo-Dream)' 운영기관으 립(Geo-Dream)' 운영기관으 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오드림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과 도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지 질공원의 자원을 활용한 지 구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공 공 교육 서비스다. 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위 도중학교와 협력해 'We Do It! 위도 Geo-STEAM'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교 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위도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 질·생태 교육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봉사여행' 진행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 기록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데미는 지난 9일 주말 체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활동으로 부안군자원봉사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 터와 협력해 '우리가 함께 만 해 친구들과 함께 구역을 들어 가는 봉사여행' 프로그 나누 쓰레기를 줍고 데이터 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록을 통해 청소년들이 환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과 경 보호의 주제로서 데이터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플로 생산에 직접 참여해 쓰레기 킹(Plogging)이 한 단계 진화 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민 한 데이터 플로킹으로 진행 의식을 가지게 됐다.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이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와 위치를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이터플로 킹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 해 우리동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계획이 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 청보리밭 축제' 성황리 마무리

53만4천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고창군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0 일까지 23일간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23회 고창 청보리 밭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 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봄의 기억, 길 위에 남 다'를 주제로 열렸다. 약 63ha에 걸쳐 출렁이는 초록 물결 속에서 방문객들 은 보리밭 사잇길 걷기, 감성 포토존, 트랙터 관람차,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만 곱했다. 특히, 5월 1~5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대거 몰 리며 축제장에 한층 활기를 더했다. 23일간의 대장정을 함께한 방문객은 약 53만4천명으로, '경관농업 1번지' 고 창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차요금 전액 환급제' 역 시 높은 만족도를 끌어들였다. 방문객이 낸 주차요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 려받는 방식으로, 축제장 먹거리 부스 와 지역 상가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고창=백종규 기자

아울러 고창군은 축제 기간 교통 혼 잡 최소화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대하 고, 셔틀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등 현장 운영을 강화했다. 주요 구간 일방통행 체계 운영과 안내 인력 확대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 이동 편의와 안전관리에 집중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과 군민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도 자연과 문화, 지역경제가 함께 어우 러지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축제로 발 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격포 관광개발사업 '순항'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 착공 현장 안전 점검

부안군은 11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 대행이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착공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 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 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정화영 권한대행은 시공사인 대 일이앤씨(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곳 곳을 살피며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안전 장비 확보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 다.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를 확인하고 현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변산면



정화영 군수 권한대행이 11일 격포 관광개발사업 착공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부안군>

마포리 일원에 총 1221억원의 민간자본 을 투입해 18층 규모의 골프장과 67실 규 모의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부안의 관광 인 프라가 크게 확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모든 건설 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있다"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공 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 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학교폭력 제로 도시' 조성

민·관·학 협력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 추진

고창군이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제로(Zero) 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 섰다. 고창군은 지난 8일 오후 2층 상 황실에서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주재로 '2026년 고창군 학교 폭력대처지역협의회'를 열었다. 김영식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고창군의회, 고 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청소년 전 문가 등 민·관·학을 대표하는 위원 13명 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각 기 관별로 추진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갈수록 지능화·다양 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 한 각 기관 간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학교폭력이 단순히 학 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 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공

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유해환경 개선 활동과 예방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청소 년들이 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 성세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오 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 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 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반딧벌여행, 2차 사전신청 시작

13일 오전 10시 오픈

전북 고창군이 지역사랑 휴가지 원 시범사업 '고창반딧벌여행' 이 오 는 13일 오전 10시부터 2차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2차 사전신청 여행기간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고창 반딧벌여행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changtrip.co.kr)를 통해 진행된다.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참 여할 수 있도록 1차 사전신청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13일에 진행된 1차 사전신청은 접수 시작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조기 마감되며 전국 적인 관심을 모았다. 특히 가족·단 체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되며 '반값으로 즐기는 고창여 행'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입증 했다. 사업 참여자는 사전신청을 마친 뒤 고창군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업소, 식당, 카페, 체험시설 등

관광 관련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 용 금액의 50%를 다시 모바일 고 창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 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 대 14만원, 단체는 최대 20만원, 가 족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2차 사전신청을 앞두고 관 광객 이용 편의 확대와 원활한 사 업 운영을 위해 숙박업소 및 관 광사업체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SNS·온라인 홍보, 관광안내소 홍보물 배부 등 사전 홍보에 집중하 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1차 사전신청 조기에 마감됨을 통해 고창반딧벌여행에 대한 전국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창의 아름 다운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 한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이 고창만 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내달 7일까지 일제단속

김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6년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 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중 점 검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상 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 다. 특히,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상품 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 리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 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부정유통 행 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호벌치전적지 순국 영령 추모제 봉행

"호국정신 계승에 힘쓸 것"

부안군은 정유재란 부안호벌치 호 국영령 선양사업회(대표 유춘득)가 11일 상서면 민중사에서 정유재란 당 시 호벌치 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향교 유림 및 평강 채 씨 종친회,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 운데 헌화와 분향 등이 진행됐으며, 순 국 선열들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리 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

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호벌치 전투는 1597년 정유재란 당 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의병장 채홍국 을 비롯한 부안 지역 의병과 주민들이 치열하게 항전한 전투로 많은 의병과 주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적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춘득 선양사업회 대표는 "호벌치 전투에서 보여준 선열들의 애국정신 과 희생정신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 한 역사와 호국정신을 계승하는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

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김제시는 지난 8일 시청 3층 대회의 실에서 밀폐공간 작업 관련 부서 담 당 공무원과 현장 근로자, 수급업체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 공간 질식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 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봄과 하절기 기온 상승 에 따른 미생물 증식 및 산소 결핍으 로 인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이 증 가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교육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는 환경과(분뇨처리시설), 축산진흥과 (축사), 수도사업소(맨홀) 등 고위험 부 서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의 협조 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 내용들로 구성 됐다. 주요 내용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 측정 결과 3년 보존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내 △적정 공기 기준 준수 법, 효율적인 환기 방법 및 보호구 착용 실무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절차 및 소방관서와의 협조 체계 등 대응 매 뉴얼 △입찰 및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를 위한 발주처의 책임 사항이다. 시는 교육 대상을 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수행업체 대표, 현장대리인, 그 리고 양돈 농가 관계자까지 확대해 안 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 다. 이현서 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 고, 철저한 예방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가족구성원 위한 강연 마련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김제 지평선아카데미가 부부와 아이를 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다. 시는 '함께 하는 부부, 함께 자라는 아이, 함께 만드는 김제의 미래'라는 테마 아래, 오는 14일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 소 장, 28일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L&D 센터 센터장을 초청해 시청 대강당에서 15 시부터 강연을 진행한다. 14일 강연을 맡은 김영한 강사는 국내 최 고의 심리극 상담 전문가로, JTBC '이혼수려 캠프'에서 위기 부부들을 위한 심리극 상담 을 진행해 큰 반향을 일으켜 왔으며, 이번 강 연에서는 '심리극으로 풀어보는 부부 이야 기'라는 주제로 일상 속 부부 갈등 상황을 함 께 돌아보고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강연을 이어가는 정병수 강사는 국제이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지낸 한국의 대 표적인 아동인권 전문가로, '아동의 행복으로 성장하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김제'라는 주제 의 강연을 통해 김제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만들어갈 변화 방향을 공유하고, 김제시민이 함께 실천할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두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5월 강연 이 가까운 만큼 상처도 쉽게 생기는 가족 구 성원 간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가족프로그램 '이달의새 탐조 교실' 참가자 모집

고창군이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 우리 곁의 갯벌' 5월 프로그램으로 '이달의 새 탐 조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새 탐조 교실'은 고창갯벌에서 만 날 수 있는 철새와 갯벌 생태를 주제로 한 탐조 입문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전문 가와 함께 '갯벌에서 만나는 이달의 새' 이 야기를 듣고, 새를 직접 관찰하는 탐조 활 동을 체험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13일 오 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자 선정 후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2026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는 국가유 산청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전 생애주 기를 아우르는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다. 유아 대상 '아기 새 교실'을 비롯해 어린 이·가족·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등이 연중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탐조교 실을 통해 고창갯벌이 다양한 생명의 터전 이라는 점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 람다"며 "가족과 함께 세계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7개 분야 연구모임 운영 시동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업 분야 정 책 현안 해결과 조직 내 협업 강화를 위해 7개 분야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소장 주재 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팀 구성 완료에 따 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모임은 벼·콩·청년농업인·스마트 팜·기후위기 등 5개 핵심과제와 치유농업 활성화·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2개 자율 과 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팀은 담당 분야의 당면 과제를 분석해 정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현 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출된 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 다. 또한, 과제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모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직 역 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직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 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순창군, 기본소득 지역경제 선순환 '가시화'

지급액 144억 중 68% 사용 기록
가맹점·사회연대경제 조직 확대
'연대장터'서 소비 선순환 제감

순창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비 확대와 공동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상생이음 연대장터'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지역 선순환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총 144억원이 지급됐다. 지급액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약 98억 6천만원으로 집계돼 68.3%의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와 창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기본소득 등록 가맹점은 기존 1,520개소에서 1,759개소로 239개소 증가했으며, 이동마트와 정육점, 분식점, 치킨집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업종이 면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38개소에서 현재 48개소 규모로 확대되며 생활서비스 실행



<사진=순창군>

조직이 새롭게 결성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지난 9일 풍산면 산울림센터 일원에서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최했다. 풍산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장터에는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조직 등 33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농특산물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행사장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취나물, 고사리 등 신선 농산물과 고추장·된장·딸기잼 같은 가공식품 판매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떡볶이와 수제요거트 등 먹거리 부스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장터는 주민들이 기본소득 카드를 활용해 지역 농가와 상점에서 직접 소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장터에서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경제 모델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면 단위의 모범모델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생활서비스 연계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전시켜 주민 체감 지역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서부로→'황진장군로' 지역 역사 재조명

서부로 18km 구간 명칭 변경 완료
주소정보시스템 4만여개 정비 추진

남원시는 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인 '서부로'의 도로명을 '황진장군로'로 변경하고, 도로표지판 교체를 완료했다.

황진장군로는 광치동 방자교차로에서 금지면 금곡교까지 약 18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10개 교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남원의 주요 교통축이다.

이 도로명은 남원 출신의 역사적 인물인 황진 장군의 이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다.

황진 장군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무장으로 '해전에는 이순신, 육전에는 황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공훈을 남겼으나,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 지역 차원의 재조명이 필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시는 해당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소 사용이 없어 시민들의 주소 변경 불편이 없고, 이용 차량이 많아 대외 홍보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도로명 변경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소 행정 분야에서 △송흥록길 명에도로명 부여 △주소정보시스템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5년 국약의 보고장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송흥록 생가와 국약의 성지 일원을 잇는 2.2km 구간을 '송흥록길' 명에도로명을 부여했다. 명에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는 않지만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특히 판소리의 시조이자 가왕으로 불리는 송흥록의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해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국약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됐다.

또한 매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약 4만여 개 주소정보시스템에 대해 지



<사진=남원시>

난 1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 확인된 훼손·망실 시설물은 7월부터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도로명 변경과 명에도로명 부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시민 체감 주소정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산단 근로자 정착 지원 본격화

'완주에서 안주' 도 특화사업 선정
주거·교통·문화 자원체계 구축

완주군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및 출퇴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 유도에 나선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도농상생형 고용 플랫폼 조성 프로젝트 특화사업에 '완주 산단 제조업 근로자 완주에서 안주(安住)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넘

어 재직자의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완주 산업단지는 전주·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아 장거리 이동 부담이 아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착 유도에 나선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교통·근속·안전·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사업은 총 4개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한다. '출퇴근하고 싶은 일터', '오래 다니면 더 좋은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문화가 있는 일터'를 목표로 주

거 생활 안정비 지급, 고용 유지 혜택 제공, 산업 안전 보건 교육과 상담 지원, 문화 공연과 스트레스 상담 및 커피 트럭 제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로 환경의 질적 개선을 꾀할 예정이다.

강제진 완주군 로컬잡(JOB)센터 팀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 창출 중심에서 고용유지 중심으로 정책을 확장한 사례"라며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조광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전환

최영일 군수 예비후보 등록 완료
조 권한대행 '민생·안전 최우선'

순창군은 지난 8일 최영일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에 따라 조광희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동안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재난·안전 관리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광희 권한대행은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운영 안정에 최우

선을 두고 주요 현안들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수당재단, 순창군 학생들에 3천만원 장학금

지역 고교생 30명 선발 전달
2014년부터 누적 2억 지원

순창군은 (재)수당재단(이사장 김윤·삼양그룹 회장)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창고, 제일고, 동계고 등 지역 3개 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됐으며, 장학증서 수여식은 지난 8일 각 학교에서 진행됐다.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과 학업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발했으며,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명예회장과 자녀들이 1968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장학사업과 연구지원, 학술·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순창군에는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0명의 학생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수당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자매결연 30주년' 中 여성시와 문화교류

여성시 공연단 춘향제서 무대
남원시 19일 여성 방문 예정

남원시와 여성시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여성시 대표단과 공연단이 춘향제를 방문해 지난 1일 개최된 개막식 식전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방문은 1996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교류와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도시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장사오류 여성시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을 비롯한 대표단 5명과 장상진 안성시 가무극 유희회 사 원장 보좌관을 포함한 공연단 11명이 함께해 자매 도시 간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어린이 체험형 환경교육

XR버스 활용 에너지 절약 교육
"창의적 ESG 활동 지속할 것"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이 중등 전장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 환경의 소중함을 나누는 '수소 도시 완주가 그린(Green) 어린이 에너지 체험단'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체험단은 완주군 소재 무지개 재생에너지원 7세 원아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경 지킴이, 확장 현실(XR) 버스 타고 출동'이라는 부제 아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절약 교육과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어린이들은 완주 문화 재단이 지원한 '확장 현실(XR) 하이로드 스마트 버스'에 탑승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가상 현실 기술을 체험하며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이서면서 '올해 첫 모내기' 본격 영농 시작

반교리 송민용氏 농가 신동진 벼

완주군이 지난 9일 이서면 반교리(송민용 농가)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모내기는 신동진 품종으로 약 2.3ha 규모의 논에서 진행됐다. 신동진은 전북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는 대표적인 벼 품종이다. 군은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부터 관내 벼 재배 지역의 모내기 작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 보조금 공급, 육묘 상토 지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상 기상과 병해충 발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고산자연휴양림 현장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분리수거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환 에너지 교육'과 자연 속에서 재활용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재활용 에너지 숲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숲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친환경 가치를 몸소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이희수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중등 전장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소도시 완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ESG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기 이앙과 초기 생육 관리가 이루어져 벼 재배 지역의 모내기 작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현 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벼 재배 영농철에 들어간 만큼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시민 선정 '올해의 책' 독후감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시민들의 책 읽기 문화 확산과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해 2026년 남원시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초등부(저학년), 초등부(고학년), 청소년부, 일반부 네 부문으로 나뉘어 남원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대상도서는 남원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6년 올해의 책'으로 △초등부-저학년 '네 꿈을 응원해, 권투장갑'(유철화, 책 읽는곰) △초등부-고학년 '이상한 무인 사진관'(서아람, 라프스쿨) △청소년부 '스파클'(최현진, 창비) △일반부 '먼저 온 미래'(장강명, 동아시아)이다.

참가신청서 및 독후감 서식은 남원시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독후감공모전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원고 분량은 초등부 A4용지 기준 1~2매, 청소년부는 2~3매, 일반부는 3~4매이다.

시민이 응모한 독후감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6명씩 총 24명(최우수 4, 우수 8, 장려 12)에게 남원시장상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이어 심사 결과는 오는 8월 중 남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산림조합 숯사랑봉사단 가정의 달 지역사회 온정 나눔

완주군(전주)산림조합 숯사랑봉사단(단장 박영철)은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아동들과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효행정보노년복지시설을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과자 꾸러미는 산림조합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한 카네이션화분은 완주군산림조합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봉사단원들과 완주군산림조합 임직원들은 직접 시설을 찾아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완주군산림조합 숯사랑봉사단 박영철 단장과 임필환 조합장을 비롯한 봉사단원들과 조합직원들은 "5월은 가족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달"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산림조합 숯사랑봉사단은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배우 박서준·정유미·최우식 '남원누리시민' 됐다

지난 10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배우 박서준, 정유미, 최우식이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하며, 남원 관광의 새로운 묘미를 선보여 화제다.

이날 방송에서 세 배우는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방문에 앞서, 남원시가 운영 중인 생활인구 등록제도인 '남원 누리시민'에 대해 알게 되었다. 누리시민이 되면 광한루원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이 즉석에서 남원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절차를 밟는 모습이 그려졌다.

세 배우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원 누리시민으로 등록했다. 배우들은 광한루원 입구에서 발급받은 남원누리시민증을 제시하고 당당히 '무료 입장'에 성공, 남원의 정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남원시 관계자는 "글로벌 스타들이 직접 남원누리시민이 되어 혜택을 누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며 "남원누리시민 2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 '반값 여행'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임실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물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연 2회 운영된다. 특히 자진신고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 완료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후 △1차 7월 △2차 11월에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천천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천천면은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천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수군산림조합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상생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나눔은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으며, 지역 복지체계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공보의 감소에도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전국적인 공중보건기사 감소로 놓여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안군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리의사를 선제적으로 확보·배치하며 안정적인 공공 의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있다.

진안군은 단순한 의료인력 충원을 넘어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의료진 확보에 집중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관리의사 채용 △경력 중심의 시니어 의사 영입 △전북도 지원사업과 연계한 파견 진료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지역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 20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기간제 관리의사를 채용해 백운보건지소에 배치했다. 해당 의료진은 현재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담 등 지역 주민 건강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11일에는 부귀보건지소에 시니어 의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오는 15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보건기관 필수 의료인력 지원사업’과 연계해 매주 금요일마다 보건소에 전문 의료인력을 파견받아 진료 공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진안군은 현재 의과 공중보건기사 6명과 관리의사 3명을 확보해 주민 의료 접근성과 일차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순항

1차 지급률 93% 달성 5월 18일부터 2차 접수

임실군이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 결과, 5월 7일 기준 지급률 93%를 기록하며 총 1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접수 첫 주에만 대상자의 76% 이상이 신청을 완료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는 군이 요일제 제한 없이 읍·면사무소 현장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정부 지침에 따라 5월 8일 1차 지급을 종료하고,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읍·오프라인 접수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군은 2차 지급을 위한 데이터 정비 등 사전 준비에 행정



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한부모 가족을 비롯해 소득 하위 70% 범위에 해당하는 주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1까지 진행된다. 2차 지원은 1차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이 시기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상품권 chak 앱)과 오프라인(읍·면사무소, 은행 영업점) 모두 가능하다. 단, 2차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유소나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가족센터, 가족정책 분야 장관상 수상

다문화·취약가정 지원부터 맞춤형 가족복지까지

장수군은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가 서울 피앤에프컨벤션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최 ‘2026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분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 피앤에프컨벤션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미경, 가족정책 유공 포상자 및 전국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격려하였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지난 2006년 결혼 이민자지원센터로 출발해 현재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며 지역 가족정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다문화가족 안정 정착 지원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 △취약가정 돌봄 및 상담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센터는 가족 간 소통 증진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연계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도 힘써왔다.

장수군가족센터는 가족 형태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촘촘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복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65개 사업장서 환경 정비 등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

무주군은 오는 27일까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3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무주군은 기존사업 외에도 현장 수요에 맞춰 새롭게 발굴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북미술포 그림책전시실 전시 안내’, ‘구전보건진료소 운영 도우미’, ‘안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도우미

운영’ 등의 신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자로 선발이 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용버스터미널, 추모의집 등 65개 사업장에서 환경 정비·정화,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천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74세 주민으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무주군 인구조사와 일자리팀,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접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노인 일자리 등) 3회 연속 참여자 및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 협약 체결

골든타임 확보·응급의료 대응 강화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과 중증 외상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 연계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항공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생사를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은 의료진이 닥터헬기에 탑승해 현장 응급처치와 이송 중 전문 치료를 담당하게 되며,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신속한 이송 요청과 환자 정보 제공, 이차특장 안전 관리 등 현장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서일영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초

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생명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승무 원장은 “이번 협약은 응급환자의 생존을 향상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운문산반딧불이 출현 조사

반딧불이신비탐사 준비 만전

무주군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운문산반딧불이’ 서식지 및 출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출현이 확인된 35곳을 중심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예상 출현 지역까지 확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출현 시간대(오후 8시 30분~오후 10시)에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환경은 물론, 개체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다량 출현지역을 염색해 반딧불이 신비탐사 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식지 확대를 위한 연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철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은 “지난해 조사된 무주군 지역 내 운문산반딧불이 출현지역은 무주읍 11곳, 설천면 8곳 등 모두 35곳으로 이곳 중 100마리 이상 다량 출현지역은 2곳”이라며 “출현 실태 조사가 반딧불이 서식 환경 보존, 서식지 발굴과 확대, 신비탐사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재향군인회, 제32대 회장 취임식 개최

제32대 이경수 회장 취임

임실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6일 제32대 이경수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과 임실군의회, 임실군 사회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임실군 재향군인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개시 선언, 내빈소개, 국민의례, 격려사, 취임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석 전임 회장을 추모하며, 임시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이경수 재향군인회 제32대 회장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경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실있는 단체를 목표로 보국안보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보활동에 열정적이고 군민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강한 책임감과 포부를 전하였다.

임실군 김치환 복지환경국장은 “재향군인회는 확고한 복지관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자랑스러운 안보단체 인만큼, 앞으로도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서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재향군인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2026년 집중안전 현장 점검 실시

임실군은 지난 8일 임실군 성수면 소재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현황을 방문하여 2026년 집중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노후됐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임실군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박현숙 부군수를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늘어나는 캠핑 이용자

의 수요에 맞춰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내용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 소화전 정상 작동 여부 및 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박현숙 부군수는 “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동안 점검대상 시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캠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업체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

진안군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도비 30%, 군비 70%)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490개 업소가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

원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연 30만 원까지 지급되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인 4월 30일 이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장과 유형업·도박업 등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안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반찬 꾸러미 발송

완주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완주꿈드림)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청소년 50 가구에 상반기 급식 지원 사업인 '꿈향상드림'을 발송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학교 중단으로 규칙적인 급식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꿈향상드림'은 완주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반찬 5종으로 구성했다.

센터는 지난 2023년 완주군 로컬푸드 반찬 전문점 '아우렐더우링'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 지원을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센터는 이번 반찬 지원 이후에도 과일·채소·유제품 등 추가 식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정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지역 내 급식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효(孝) 박스 전달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효(孝)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취약 어르신을 직접 발굴해 추진한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효박스는 설렁탕, 도가니탕, 곰탕 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5종과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물티슈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꾸러미 형태로 준비됐다.

이번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효박스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안부를 묻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박병훈씨 가족, 대한적십자사 봉사명문가 표창

3대가 이어온 1만385시간 봉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남원 참봉사회 박병훈 씨 가족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에서 개최한 '5·8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서 '적십자 봉사명문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박병훈 씨(1대)를 비롯해 박은정 씨(자녀·2대), 양광모·양하연 씨(외손자·3대) 가족이다.

'적십자 봉사명문가'는 직계 3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한 우수 가문에게 수여되는 표창이다. 대한적십자사 전

북지사에 따르면 봉사명문가로 선정된 박 씨 가족은 3대에 걸쳐 1만 385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1대 박병훈 씨는 1996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 입회한 이후 30년간 학교 앞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남원 참봉사회 결성·운영 등을 통해 총 7,737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2대 박은정 씨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2021년 입회 후 최근 5년간 황금도시락 배달 봉사 등을 중심으로 총 2,131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취약계층 결식 예방과 생활안전 지원에 힘써왔다. 또

'26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한 3대 양광모·양하연 씨 역시 어머니 어린 동행 장보기와 희망풍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봉사활동 차 결연활동 등을 학업과 병행해 이어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정읍시 이·동장연합회,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6일 정읍시 이·동장연합회(회장 강연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이·동장연합회는 23개 읍·면·동 이·동장협의회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지역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서 실천해 오고 있다.

강연천 회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완주 봉동읍 새마을부녀회, 만경강 환경정화 활동

여름철 장마 앞두고 하천 수질 오염 예방

완주군 봉동읍 새마을부녀회(연합회장 김행란)가 최근 지역의 소중하고 생태 자산이자 주민들의 휴식처인 만경강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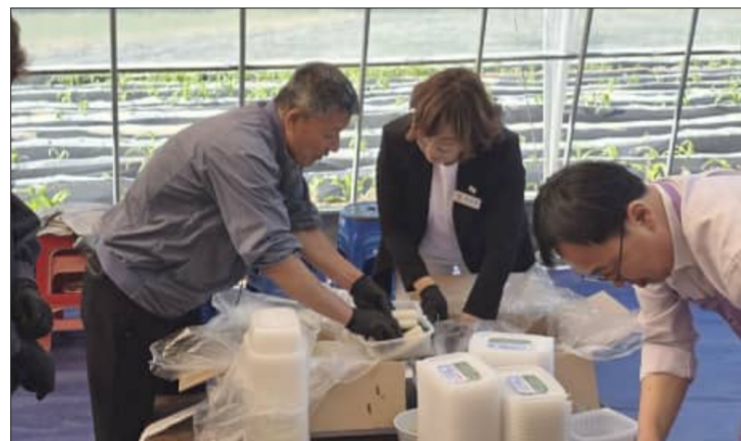
이번 활동은 봄철 날들이객 증가와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하천 둔치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원들은 만경강 산책로를 중심으로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 페플라스트, 스티로폼 등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각종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특히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수풀 사이와 하천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정비해 약 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제 금산면 어부바봉사단, 어버이날 떡 나눔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어부바 주민자치봉사단과 함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 맞이 '감사의 떡' 나눔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떡 나눔 활동은 금산면 지역특화 사업인 '마을공동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마을공동밥상 사업은 매월 시기에 맞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가

정의 달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감사의 떡을 준비했다.

이번 준비한 감사의 떡 500개를 독거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신은학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감사의 떡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도마지파 전주 교회, 말씀 대성회 개최

전주에서 전·현직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후속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9일 전주시 도마지파 전주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취 실상 증거'를 주제로 '2026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전·현직 목회자 150여 명 등 약 3000 명이 참석했다.

이만희 총회장의 강연 직후 열린 2부 '목회자 포럼'에서는 '기독교

분열의 원인과 하나 됨의 길',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의 가감 의미'를 주제로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 71명 전원이 신천지예수교회의 후속 교육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우 도마 지파장은 "앞으로도 말씀을 투명하게 전하고 전북 지역 교계와 화합해, 성경 안에서 교류하는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익산 함열신협, 지역 사랑 담아 함열읍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함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함열신협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함열신협은 매년 설 명절 떡국떡 나눔과 말복 삼계탕 나눔, 추석 송편 행사, 어부바 멘토링,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밀착형 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착한가게 가입은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함열신협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된다.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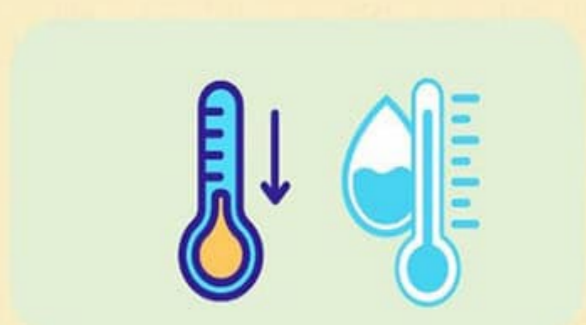
함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종석 이사장은 "1979년 설립 이후 함열신협이 자산 2,000여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환절기 감기 예방법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一事一言〉

키다리 아저씨의 정원



배해수
무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고고인류학 박사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키다리 아저씨의 정원'에는 담장을 높이 쌓고 아이들을 내쫓은 거인이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정원에는 긴 겨울만 이어집니다. 꽃은 피지 않고 새들은 노래를 멈춥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아이들이 몰래 들어와 웃고 뛰놀기 시작하자 얼어붙었던 정원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나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들며 봄이 돌아옵니다. 외로움과 적막 속에 갇혀 있던 거인의 마음 역시 함께 풀려갑니다.

요즘 농촌의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 문득 그 동화가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에는 마치 겨울에 멈춰버린 정원 같은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학생 수보다 교사가 더 많은 학교, 이미 문을 닫은 폐교, 운동장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교실 창문은 굳게 닫힌 공간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한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장소들이 이제는 조용한 풍경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농촌에서 아이들의 모습 자체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십여 년 넘게 시골길을 오가며 초등학교 앞을 자주 지났지만, 가방을 메고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를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집 앞에서 학교까지 이동합니다. 안전과 편의라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길가의 들꽃과 곤충, 계절마다 달라지는 논밭의 풍경, 친구와 함께 걷고 장난치며 만들어지는 감수성을 경험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로 걸어가는 길 위에서도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이름 모를 풀꽃을 발견하고, 메뚜기를 잡아보며, 비 온 뒤 흙냄새를 맡는 시간은 교과서 밖의 또 다른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의 교육은 지나치게 효율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런 시간을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폐교 문제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는 사용이 끝난 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유년 시절과 공동체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공공 공간입니다.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공부만 하던 장소가 아닙니다. 운동회와 소풍, 친구들과의 다툼과 화해, 첫 설렘과 첫 실패가 함께 남아 있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교를 새로운 방식으

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생만을 위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주민까지 함께 이어주는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까요?

옛 운동회를 다시 열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전래놀이와 집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상실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관계가 이어지는 일입니다.

농촌의 폐교는 방치된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 마을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얼어붙은 정원에 봄이 찾아왔던 '키다리 아저씨의 정원'처럼 말입니다. 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고 공동체를 다시 만나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는 6월 새롭게 선출될 교육감은 이 문제를 단지 행정적 숫자라면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북이 전국 최초로 폐교 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면, 그것은 사라져가는 농촌에 다시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를 되돌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시

유용(有用) / 송기원

옥양목 속치마가 빨랫줄에서 하얗게 바래고 있네 누가 아꼈다가 꺼낸 기다림일까	무늬가 되네 자세히 보니, 연한 분홍빛의 모란꽃으로 활짝 피고 있군	밭아도 좋을 걸 그렇게 이승에서의 살냄새도 몇 도만 더 푹푹, 모란꽃에 스며들 걸 누군가의 기다림을, 내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내 마지막 남은 살점이 거기에 달라붙어 오래전의 희미한	내 살점의 마지막 유용이라면 몇 도만 더 조도(照度)가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
1974년 단편소설 '경의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향년 77세로 세상과 작별했다.

사설

‘내란 프레임’ 정치공세, 이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전북지사 경선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결국 사법 판단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기했던 '내란방조' 의혹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단순한 법적 결론을 넘어 정치권의 책임 문제로 향하고 있다.

선거는 검증의 과정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검증이 최소한의 사실과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

특히 '내란'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겁고 위험한 정치적 낙인 중 하나다. 단순 비판이나 정책 검증 수준을 넘어 상대를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

거 국면에서 적극적인 프레임을 앞세웠다면 이는 단순 공세가 아니라 도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수사 결과 혐의 없음 판단까지 내려졌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정 혼란과 공직사회 불신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안을 특정 후보의 승패 문제로만 보서는 안 된다. 선거가 과열될수록 자극적 의혹과 낙인정치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프레임 정치만 남게 된다면 지방정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도민은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번 논란은 전북 정치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

독자투고

5월, 가족의 '무사귀가'가 최고의 축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이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각 시·군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행사들이 상춘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축제의 이면에는 '교통사망사고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최근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사망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과 경각심을 준다.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두 잔'의 술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단란했던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특히 축제장 주변이나 연휴 기간에는 들뜬 마음으로 인해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도로 위의 흉기로 돌아온다.

즐거운 축제와 행복한 가정의 달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철저한 약속이 필요하다. 첫째,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운전대를 잡지 않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둘째, 동승자와 주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한다.

셋째, 축제 주최 측과 경찰의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행사장 주변의 음주단속 강화는 물론,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장 행복해야 할 5월, 찰나의 방심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 축제의 완성은 화려한 불거리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무사귀가'에 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잡은 운전대가 누군가의 행복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과 엄격한 자기 통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오경택 순경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원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변화 전북타임스가 함께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282-9603 신문구독282-9600



1.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 설명회
 2.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
 3. 이동노동자 센터
 4.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5. 중동 TF팀 비상대책회의
 6. 외국인 근로자 종합상담

김제시, 중동사태 여파 최소화 총력

고유가·고물가 위기 속 시민 부담 완화에 집중

김제시가 중동발 위기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및 물가 압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에너지 절약 정책 등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순항', 1차 지급률 79.2% 달성

시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1차 지급 대상자 10,152명 중 8,043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여 지급률 79.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76.4%)과 전북 평균(78.4%) 지급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여 직접 방문 접수를 지원하는 등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50만원)으로 지

난 4월 27일부터 8일까지 우선 지급됐으며,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독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시행 첫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 '중동 사태' 분야별 비상대책 가동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총력

시는 이현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진흥과를 비롯해 투자유치과, 교통행정과 등 9개 부서가 참여한 '김제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주 1회 대응방안 논의 및 부서 간 현황 공유를 통한 분야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생활물가 점검과 가격표시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한 공사 기간 탄력 운영,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차질없는 종량제 봉투 공급, 유가보조금 지급·면세유 가격 모니터링 강화, 농자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연계 추진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에너지 위기 '경계' 발령...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원 안보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유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한층 강화하여 2부제(홀짝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출입구 차량 통제 및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청사 냉·난방기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벽걸이 야간 경관조명을 오후 9시 이후 일괄 소등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점검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조기 집행으로 중동발 경영 위기 최소화 노력

시는 대외 경제상황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조기 집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순 사업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

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필수 장비·비품 교체를 돕는 경영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한달간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7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 이동노동자 센터 '신풍동'에 이어 '검산동 편익점'으로 확대, 휴식권 보장 한층 강화

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워터운영을 확대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상권 밀집지역 접근성이 높은 검산동 내 위치한 편익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 공간을 활용한 '연계형 워터'를 추가 조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거점 중심의 운영 한계를 보완하고, 이동 동선 내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휴식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시는 이동노동자 센터 이용 패턴 분석을 반영해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를 동시에 개선했다. 아울러 4월에는 전북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한 세무·안전교육을 추진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상·하반기에 나누어 추진할 예정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지역 고용위기 해결사로 우뚝


시는 김제일자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자리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김제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고용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규 취업자의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해 조기 이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도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찾아가는 원스톱 종합 상담 서비스"도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산업·농공단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노무·금융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체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상담 창구를 현재까지 2회 운영했다.

향후 지자체 교육, 한국어 자격증(TOPIK) 취득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병행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